

신임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장 인터뷰

“실력있고 청렴한 의회 만들겠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변화와 혁신 통해 의회 위상 제고 총력
의회 문턱 낮춰 시민들과 적극 소통
집행부와 정책협의체 제도화해 협치



취 시민들이 만족하며 다가갈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민선 8기 현 집행부(시청)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 바퀴”라면서 “견제와 협력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광주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명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기획하고, 의회는 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책무다”면서 “집행부가 정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의회와 소통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한다면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도 이루어 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시적인 정책협의체를 제도화해 협치 의정을 펼치고자 한다”면서 “특히 의장으로서 균형각각을 유지하면서 집행부와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과거 광주시의회 원구성을 놓고 의장파인 ‘주류’와 비(非)의장파인 ‘비주류’와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제9대 시의회에서는 더 이상 의원들 간 갈등은 없을 것이다”면서 “조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균형각각을 갖고 조율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적극 뒷받침”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신뢰받고 소통하고 꿈 주는 의정 펼칠 것
보수와 진보, 무소속 의원과 상생 정치
집행부 감시·견제,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면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재정자립도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 전남도가 헤쳐나갈 게 많다는 게 서 의장 생각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끄는 민선 8기 전남도가 제대로 일할 수

“민선 8기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핵심 과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을 위한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서동욱(순천 4·더불어민주당·사신) 의원이 제 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의장으로 선출됐다.

서 의장은 의장 선거에서 동료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61표 중 58표를 획득했다.

서 의장은 11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세심하게 듣고 도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 꿈과 행복을 주는 전남도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1명 가운데 56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진보당 소속 의원 2명,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이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더불어민주당 일색인 탓에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 의장은 “많은 분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와 광역의회의 지방정치는 차이가 있다. 보수와 진보, 무소속 의원들 간의 협치와 상생 정치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 의장이 꼽는 전남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은층을 위

있도록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면서, 집행부의 정책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게 서 의장 구상이다.

서 의장은 “전남도의 반도체, 우주항공, 2차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유치(30조)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혁신 도시의 에너지밸리 조성, 조선산업 지원에도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전남권 의대 유치를 위한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으는데도 적극 힘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서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는 등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된 점에 대해서도 도의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 조례 및 규칙 21건을 제·개정하고 인사 업무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다”면서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공보·미디어 홍보팀을 운영하는 한편, 의회와 의원들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도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명 출마선언 초읽기...97그룹 4인방은 밀바닥 표심 잡기

민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후보등록 마감 18일 선언할 듯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등록 마감일이 임박할 것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당대표 출마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 상임고문은 출마 여부와 함께 적절한 출마선언 시점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출마하게 된다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8일에 맞춰 출마선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고문 측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여전히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며 “숙고가 필요한 만큼 출마선언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에 맞서 일찌감치 출마표를 낸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4인방은 ‘이재명 대세론’을 깨기 위해 국민·당원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며 밀바닥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고향인 전북으로 향해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는 데 이어, 청년들과의 호프미팅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강훈식 의원도 지난주 출마 선언 후 고향인 대전·충남을 돌면서 민주당 창당 원로를 찾는 등 민심을 청취했다.

당권 주자를 내지 못한 친문(친문재인)계 표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흡수할 것으로 보이는 강병원 의원은 전남·광주·전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난다.

정 전 총리가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고문과 각을 세웠던 데다 정세균계가 범친문계로 분류되는 만큼

비명(비이재명)계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범친문계인 이낙연계의 설훈 의원도 조만간 출마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고위원 선거전에서도 친문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일까지 3선 정청래·서영교 의원과 조선장경태 의원이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친명(친이재명) 성향이자 강경파 조선의원 모임인 ‘처럼회’의 양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처럼회 소속인 이수진(동작을) 의원과 친명계 재선인 박찬대 의원의 출마도 점쳐지는 등 현재까지는 친명계 의원들의 최고위원 도전이 활발한 추세다.

한편, 20대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박영훈(28)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리얼미터도 윤 대통령 지지율 30%대 추락

KSOI 조사 긍정평가 34.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잇달아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5명에게 묻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0%였다.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7.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4.5%로 40% 선이 붕괴되며 30%대로 떨어졌다. 지난주 조사 42.8% 대비 8.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8.9%포인트 오른 60.8%를 기록,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3주 연속 앞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긍·부정 격차는 26.3%포인트를 기록, 직전 두 조사에 비해 크게 벌어졌다.

리얼미터 조사와 마찬가지로 KSOI 조사에서도 만 18세~29세(20대)에서 부정 평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51.7%→68.7%, 17.0%p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다. KSOI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KSOI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